

바다,

실어다 뿌리는
바람 좇아 씨원타.

솔나무 가지마다 샅쭈히
고개를 돌리어 빼들어지고,

밀치고
밀치운다.

이랑을 넘는 물결은
폭포처럼 피어오른다

海邊에 아이들이 모인다
찰찰 손을씻고 구부로,

바다는 작고 쏘아진다.
갈매기의 노래에……

도려다보고 도려다보고
돌아가는 오날의 바다여!

一九三七、九月、元山 松濤園서

바다

실어다 뿌리는
바람조차 씨원타.

솔나무 가지마다 새쭈히
고개를 돌리어 빼들어지고

밀치고
밀치운다.

이랑을 넘는 물결은
폭포처럼 피어오른다.

해변에 아이들이 모인다
찰찰 손을 씻고 구부로

바다는 자꾸 쏘아진다
갈매기의 노래에……

도려다보고 도려다보고
돌아가는 오늘의 바다여!

1937. 9. 원산 송도원서